

고사 위기 제주관광업계 지원 나선다

도, 상반기 2000억원 용자 지원... '자금 숨통' 기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로 추천금액 선정 방식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명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사업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용자와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22일 올해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용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 공고하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안정자금 위주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추천금액 선정

방식이 개선됐다. 우선 도는 1800억 원을 여행업계, 관광숙박업 등의 경영안정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으로, 200억원을 시설 개·보수 자금을 배정했다.

지원은 용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차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사업 변동금리'에서 0.75% 우대하는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돼 0.51%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개인 등 중소기업은 0.51%를, 대기업은 1.26

%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용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이와 함께 용자 추천금액 선정 방식을 지난해는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선정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용자 지원과 함께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2017년 이후부터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자 중 ▷용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용자받은 업체이거나 ▷상환유예를 1회도 안 받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업체가 대상이 된다.

기존 1년 초과 상환 유예를 받은

업체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치기간 중인 경우에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원금 상환종일 경우는 원금상환이 중단되고 거치기간 1년 후 원금상환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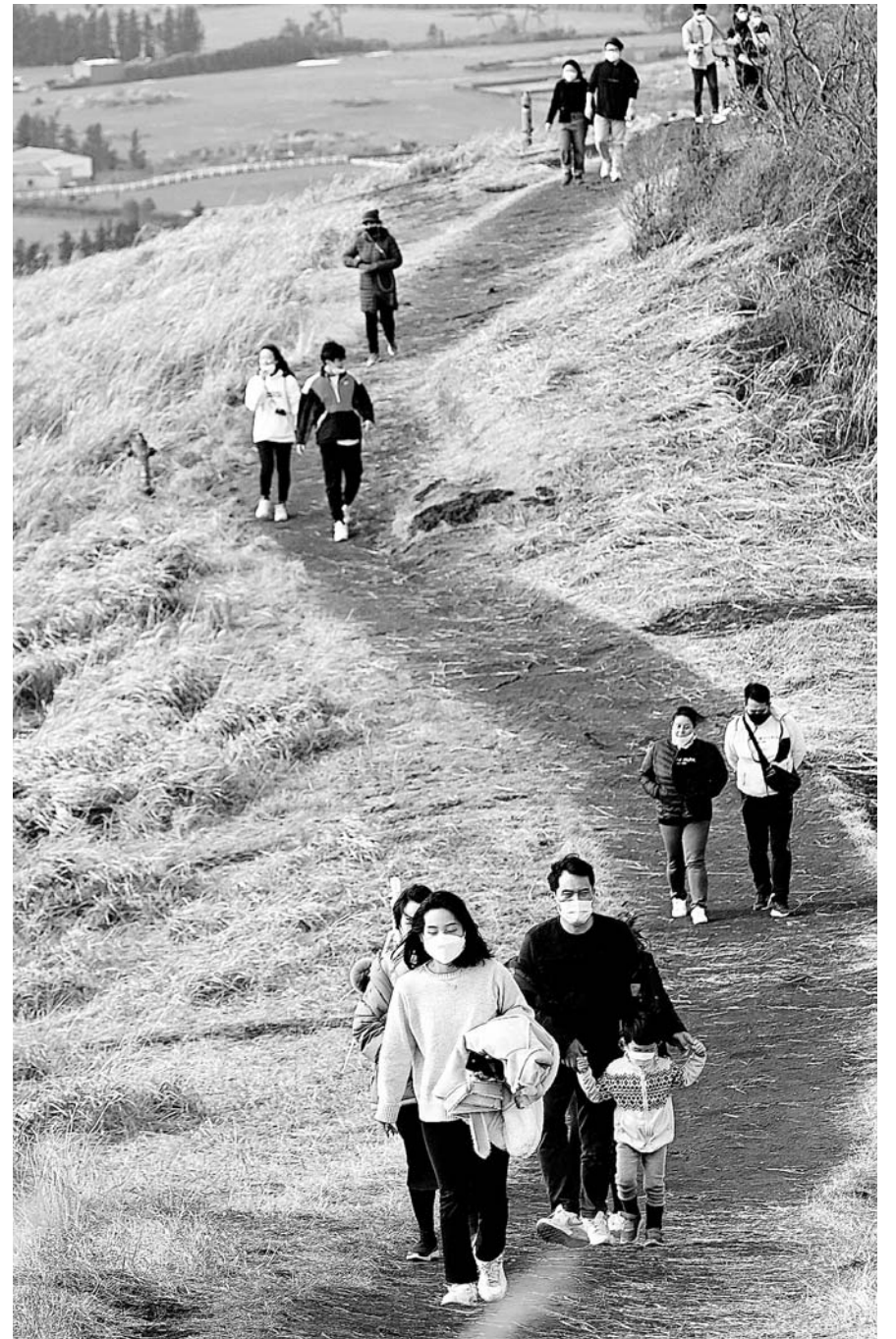
상환유예에 대한 신청과 접수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이다.

신청·접수는 제주웰컴센터 내에 설치된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로 하면 된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관광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770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을 특별용자 지원한 바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따뜻한 날씨 속 오름 나들이 한낱 기온이 17도까지 오른 21일 제주시 애월읍 새벌오름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름을 오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전기차 급속충전시간 절반으로 단축

도, 배터리 진단 실증 착수 ESS 병합 활용 40분→20분

'전기차 선도시 제주'가 충전 인프라 고도화 및 배터리 진단서비스 실증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특구'에 따른 충전 인프라 고도화와 성능·상태 진단서비스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중고 전기차 거래 활성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도는 지금까지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병합한 충전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를 토대로 전기차의 기존 충전기와 용량이 동일한 ESS를 병합해 활용하면 급속충전시간이 40분에서 20분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특히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해 실제 도내 50kW

급속충전기 859대에 대해 1대당 2000만원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172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중고 전기차 거래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성능·상태 진단서비스도 운영한다.

중고 전기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을 희망하는 도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사이트(<http://evcheck.joyev.co.kr>)에 접속해 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선정(1일 5~10명)돼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백국기기자 haru@ihalla.com

국민의힘 "4·3희생자 배·보상 의무로 바뀌야"

어제 4·3특별법 쟁점검토회의 '위자료' 용어 수용 가능 밝혀

국민의힘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배·보상 조항과 관련 '위자료' 용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의 처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 갑) 의원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과 함께 4·3특별법 쟁점

검토회의를 열고 개정안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4·3특별법 배보상 조항 관련) 회의 통해 '위자료'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고, 특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해야 하는'으로 내용의 의무규정으로 바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제17조의 제목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정해져 있어 이를 '보상'으로 바꾸면 법률 조문에 '위자료'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겠다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이명수 의원은 21일 4·3특별법 쟁점검토회의를 열고 개정안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이어 이 의원은 "4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매주 화요일은 꽃 사는 날입니다"

제주시, 꽃 소비운동 펼쳐

제주시가 코로나19로 학교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치러지며 꽃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한 꽃 소비운동을 벌인다.

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1직원 1꽃병 갖기 실천 및 화요일은 꽃 사는 날'로 지정하고 전 부서와 사업소, 읍면동은 물론 유관기관인 농·간협과 농업인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꽃 구입 생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가 1년동안 이어지면서 화훼업계의 연중 최고 대목의 하나로 꼽히는 졸업·입학식 특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라지면서 화훼업계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시는 꽃 소비 촉진을 위해 백합·국화·가베라를 재배하는 지역내 42농가(34ha)에서 공급 가능한 꽃과 가격을 사전 조사해 매주 목요일에 사전 공지하고, 공직사회와 유관기관·단체에서 수요량을 파악해 제주시 농정과로 구매신청을 하면 매주 화요일 재배농가의 꽃을 공급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꽃 소비운동을 펼쳐 관내 화원·화훼농가와 연계, 44개 기관·단체에 1064개의 화분과 꽃(45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양행서 농정과장은 "화훼소비 촉진 행사가 1회성이 아닌 일상생활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을 꽃 사는 날로 운영,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매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탕자대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히트매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대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